

밀도 높은 작품으로 풍성한 결실 맺어

2001년 문학책의 흐름을 읽는다



올해 문학부문에서 가장 많은 책이 팔린 분야는 역시 소설이다. 이야기를 좋아하고 이야기의 힘을 믿는 독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소설은 베스트셀러 목록에 빠지지 않고 있다. 시와 소설 모두 중진 작가들의 약진이 돋보였고, 비평계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문학권력 논쟁이 계속됐다. 비평의 위기론과 함께 비평의 원론적인 영역에 대한 성찰이 세대를 넘나들며 이어졌다.

중진의 힘 돋보이는 소설과 시

소설은 베스트셀러 종합순위에서도 수위를 차지해 위력을 실감하게 한다. 그 면면을 보면, 지난해에 출간돼 꾸준히

인기를 누려온 조창인의 《가시고기》(밝은세상), 김하인의 《국화꽃향기》(생각의나무), 박완서의 《아주 오래된 농담》(실천문학사), 최인호의 《상도》(여백미디어)와 올해 출간된 신경숙의 《바이올렛》(문학동네), 이용범의 《열한번째 사과나무》(생각의나무) 등이 있다. 이 가운데는 출판사의 사재기로 베스트셀러라는 값진 이름이 퇴색한 작품도 있어 아쉬움을 남긴다.

그러나 소설부문에서는 원기를 북돋울 작품들도 많이 출간됐다. 필명만으로도 중량감 있는 작가들이 약속이나 한 듯 이름에 걸맞은 작품들을 발표했다. 김원일, 김 훈, 안정효, 윤후명, 이제하, 최인호, 한승원, 황석영 등이 그 주인공인데, 특히 김 훈은 《칼의 노래(전2권)》(생각의나무)로 동인문학상을, 황석영은 《손님》(창작과비평사)으로 대산문학상을, 박완서는 《그리움을 위하여》로 제1회 황순원문학상을 수상했다. 중진작가들의 작품집 출간과 문학상 수상은 문단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동정 없는 세상》(문학동네)을 쓴 박현욱과 《아름다운 집》(들녘)을 펴낸 손석춘, 《슬로우 불릿》(실천문학사)으로 중앙문학상을 수상한 이대환은 각기 발달한 상상력과 탄탄한 구성력, 새로운 주제 등으로 주목받았다. 그리고 양순석의 《나무가 아름다워지는 시간》, 이만교의 《머꼬네 집에 놀러올래》, 한창훈의 《세상의 끝으로 간 사람》(이상 문학동네), 은희경의 《마이너리그》, 최인석의 《구렁이들의 집》(이상 창작과비평사), 류가미의 《라디오》(문학과지성사), 이청혜의 《아버님의 여자들》(이룸) 등이 눈길을 끌었다. 러시아에서 활동하며 《리진 서정시집》(생각의바다)으로 유명한 시인 리진이 소설 《짜리섬은 무인도》(장락)를 출간해 고희의 필력을 자

랑했다. '최인훈 《광장》 출간 40주년 기념 헌정 소설집'인 《교실》(박정란 외, 문학동네)도 나와 독자들의 가슴을 훈훈하게 했다.

시부문은 출판사마다 고르게 평년작을 수확했다. 또 소설과 마찬가지로 신인보다는 중진의 활동이 도드라졌다. 나희덕의 《어두워진다는 것》, 대산문학상 수상작인 이성부의 《지리산》, 정희성의 《시를 찾아서》, 허수경의 《내 영혼은 오래되었으나》(이상 창작과비평사), 최하림의 《풍경 뒤의 풍경》(문학과지성사) 등이 독자들의 오랜 기다림에 응답했다. 문학상 제정 자체에 논란이 있었으나, 제1회 미당문학상 수상작으로 정현종의 《건달 수 없네》가 선정됐다.

중진, 신진 모두 발군의 실력 발휘한 비평계

비평집도 활발하게 출간돼 어느 해보다 풍성한 결실을 맺었다. 김미현, 권성우, 남진우, 신철하 등 젊은 비평가

들은 물론, 김인환, 유종호 등 중진들의 비평집도 줄을 이었다. 그 작품들을 짚어보면, 김미현의 《판도라 상자 속의 문학》(민음사), 남진우의 《그리고 신은 시인을 창조했다》(문학동네), 권성우의 《비평의 희망》(문학동네)과 《비평과 권력》(소명출판), 신철하의 《역사의 천사》(행복한책읽기), 김인환의 《기억의 계단》(민음사), 팔봉 비평문학상을 받은 황종연의 《비루한 것의 카니발》(문학동네), 유종호의 《서정적 진실을 찾아서》(민음사), 김병익의 《21세기를 받아들이기 위하여》(문학과지성사) 등이 있다.

비평가들의 의견교환은 대부분 '지상논쟁'을 통한다. 일간지는 물론 동인, 활동지역 등으로 성향을 구분할 수 있는 문예지들이 격론의 장을 제공해 결과적으로는 출판의 활성화로 이어졌다. 권성우가 4·19세대 비평가들을 비판하면서 촉발된 문학권력 논쟁은 《사회비평》《황해문화》《문학동네》 등을 매개로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다. 권성우는 김미현과 '읽히는 비평'에 대해 공박했다. 권성우가 '비평의 하방(下放)'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김미현은 '수준 낮은 비평이 아니라 쉽게 전달되는 비평'이라고 대응했다. 새로운 이론이 발표되진 않았으나 '읽기'와 '비평'에 대한 꾸준한 노력과 고민이 돋보인 한해였다. — 차정신 기자